



나눔이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의 아름다운 이야기"



Contents



발행인 : 나눔이네 사람들
편집인 : 문미향, 이정화, 오상민
인쇄처 : 디자인점수원 TEL : 043) 855-2231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TEL : 043) 843-9912, 844-8150
FAX : 843-9911

03 신규직원 인사말

신규 프로그램 소개

- 04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꽃들에게 희망을”
- 06 가온 이야기
- 08 다운 이야기
- 09 별하 이야기
- 10 산다라 이야기
- 11 아토 이야기
- 12 나르샤 이야기
- 13 나눔의집 이모저모
- 우리 이렇게 지냈어요!!!
- 15 자원봉사 현황
- 16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 19 후원 안내 및 세입 지출
- 20 나눔의집 안내도 및 장애인생산물 소개

알림마당

최근 충주 시내에서 나눔의집을 사칭하며 물품(반찬, 김, 떡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지역 업체(식당, 슈퍼 등)에 방문하여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며, 위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 후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나눔의집으로 연락주세요~

나눔의집 홈페이지
<http://www.cjnanum.or.kr>

신규직원(순환보직) 인사

물리치료사 이 옥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으로 1년 동안 두 아이와 열심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4월 25일 복직을 하면서 나눔의집 물리치료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 물리치료사 이옥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기 전 같은 산하기관인 송덕재활원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도 처음 사회에 발을 딛는 초년생처럼 모든 것이 낯설었고, 또 '이 곳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욕만 앞서 실수도 많았고, 이왕인 한분 한분 이름을 외우는 것과 함께 일하는 동료 이름을 외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이해해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한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신입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려고 합니다.

따스했던 봄날은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건강 유지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도 신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의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꽃들에게 희망을~!!"

사회재활교사 **강 미 정**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꽃들에게 희망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 1박2일 캠프를 지난 5월 14일부터 1박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순천까지 먼 길을 가야하는 우리 나눔이네 식구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옷도 꺼내 입고, 예쁜 모자와 선글라스로 한껏 멋을 내고, 들뜬 마음으로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비록 좁은 차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동하는 길이었지만 우리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웃음소리가 차 안 가득하였습니다.



가장먼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심식사를 시작으로 순천만국가정원 꽃축제 박람회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엄~~청 넓은 정원과 다양한 주제의 꽃밭 그리고 다양한 체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우리의 피곤함도 날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 누가 막으랴~ 하늘도 도와주시는지 시원하게 바람도 불어주어 즐거운 미소와 함께 국가정원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방한양만들기 체험을 하며 다양한 약재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스카이큐브를 타고 하늘 길을 달려보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 타도 즐거운 꽃마차를 타고 세계정원을 둘러 보기도 하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호수, 예쁜 꽃들과 좋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게 기억이 됩니다.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둘째 날 아침이 되어 생태체험선 배를 타러 나섰습니다. 습지 탐험도 하고, 관광객을 위해 조성된 다양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드라마촬영장으로 유명한 낙안읍성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그 당시 마을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운전을 해 주신 원장님과 오상민 선생님... 그리고 우리 나눔이네 식구들을 위해 기꺼이 어깨와 다리, 허리를 내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눔이네 가족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행복~ 충전~

천등산 농촌체험

사회복지사 박 시 은



가온호실 산척으로 천등산 농촌체험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흑미쌀 찌빵 만들기를 시작 하면서 손으로 반죽을 주물럭거리기도 하고 속 재료인 팥을 넣고 가지각색으로 다양한 찌빵의 모양을 만들며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찌빵을 찜통에 가지런히 넣고 잘 찌서 나오기를 기대하며 천등산에서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농산물로 만든 여러 가지 반찬들, 사과고추장 제육볶음 등 시골밥상 한식뷔페로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식뷔페 체험도 인기





프로그램 이라고 하네요. 특히 단호박을 넣은 백김치가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경화씨 아버님이 산척으로 깜짝 방문을 하셔서 경화씨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체험활동을 함께하며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과고추장 만들기를 체험하였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고추장 재료를 섞기도 하고, 예쁜 용기에 담아 사진을 찍고 자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체험일 수도 있지만 가온 호실 가족들에게는 오늘의 체험이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한 체험이었습니다. 천등산 사장님 말씀대로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에너지 충전~

다운호실 계절활동

사회복지사 최 옥 경

6월의 태양이 눈부신 초록을 만들고,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기다려지는 더위지만 다운 호실 가족들은 기다리던 계절활동인 드라이브와 외식을 다녀왔습니다. 멋진 청바지를 차려입고 휠체어에 오르는 방일홍씨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요, 밖으로 나가는 걸 미리 알아차린 이삼열씨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담당 직원을 따라 짐 챙기기에 신이 났습니다. 평소 신발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하늘씨도 오늘만큼은 신발도 잘 신고 휠체어를 움직이며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였습니다.

나눔의집 카운티에 몸을 실어 중앙탑으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창밖을 보느라 정신없는 흥건표씨는 신기한 것이 너무 많은가 봅니다. 머리를 똑바로 세워 시선을 고정하고 오랫동안 창밖을 보며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차에서 내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주변 산책도 하고, 힘들어 하시지만 거동이 가능한 김만수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기 운동도 하였습니다. 항상 부지런한 다운 호실 마스코트 이삼열씨는 다른 이용인분의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 오늘의 하이라이트!!!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 충주 탄금한우타운으로 이동하여 고기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하시는 모습에 직원들도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눔의집에 도착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지 이삼열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린 담당 선생님이 다음에는 더 즐거운 곳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하자 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다운 호실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운 호실 파이팅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도예공방 체험!!

별하 이야기

사회복지사 이 주 영

푹푹 찌는 더운 날이 찾아온 여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개성만점 별하 호실은 다양한 도예작품과 체험거리가 가득한 도예공방을 찾아 떠나보았습니다!!

다소 소란스럽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분들과 손을 잡고 처음 보는 도예토를 자르는 방법도 배우고, 손으로 직접 조물조물 흙을 빚어 세상에 하나뿐인 화분을 만들어봤습니다.

현지씨는 스스로 흙을 만지며 새로운 촉감이 만족스러우니 큰소리로 웃어 보이셨고,

미경씨는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도구가 마음에 드는지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경숙씨와 은자씨는 반죽해 만든 화분을 손으로 뭉개고 호탕하게 웃으며 즐거워 하시고,

평상시 참여율이 저조한 복순씨도 열심히 반죽을 밀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에 직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숙씨는 함께한 자원봉사자분과 멋진 작품을 자랑하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만들어진 도자가 구워져오면 자랑스러워하는 얼굴들을 기대해 봅니다.

별하 호실 가족 모두가 함께하였기에 더욱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산다라 호실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유 혜 인

울긋불긋 꽃향기로 가득한 봄이 지나고 푸르른 나무들과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5월 산다라 호실에서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중앙탑 일대로 계절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부터 산다라 호실 이용인분들의 얼굴에는 밖의 날씨만큼이나 화창한 밝은 표정과 따사롭고 환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설레고 들뜬 마음을 안고 버스에 하나둘씩 탑승하였습니다, 산다라 호실 탑승완료 중앙탑으로 출발!!

꼬르륵... 꼬르륵... 우리들의 배꼽시계를 알리는 그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용인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저희는 그 유명한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는 비빔국수집을 방문하여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중앙탑에 도착하여 넓은 들판을 배경삼아 사진도 찍고, 자연의 아로마테라 피인 풀냄새와 흙냄새를 맡으며 산책도 하니 모두들 힐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기 전부터 손뼉도 치고 노래도 흥얼거리며 즐거움을 수시로 표현하는 태식씨, 오랜만의 외출로 인해 신이나 장시간 휠체어 탑승에도 힘든 표정 없이 발과 팔을 흔들며 신남을 표현한 인구씨, 한껏 멋을 부린 희준이, 계절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소리를 내며 밝은 미소를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근오씨와 두식씨, 무표정으로 시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영모씨와 명직씨, 평소에는 부끄러워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외부로 나와 신이 났는지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우~~와”를 연속 외치는 석호씨까지 산다라 호실 가족 모두가 있었기에 오늘의 계절활동이 더욱 의미가 있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처럼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우뚝하니 서있는 푸른 나무처럼 산다라호실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



햇살 가득~ Sunny Day~ 아토이야기

사회복지사 박 경 춘



6월의 따뜻한 햇살 아래!!

아토호실의 가족 모두가 총주의 자랑인 총주댐으로 계절활동을 나왔습니다.

출발 전부터 흥분하여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하는 인석씨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설레고 있는 다른 이용인분들의 마음 또한 얼굴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호수 총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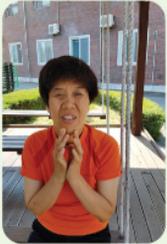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총주호를 시원하게 내려다보며, 맛깔나게 차려진 비빔밥과 엄청나게 큰 장어구이 그리고 얼큰한 매운탕을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용인분들의 눈과 입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총주호가 넓게 보이는 장소로 옮겨 햇볕을 쬐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롭게 단장한 총주 물 박물관을 구경하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지 못하는 카페에 들려 시원한 음료수를 한잔씩 마시고, 이용인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는 시간도 갖았습니다.

환한 미소와 손가락으로 브이를 하며 포즈를 취하는 이용인들의 해맑은 표정들을 보면서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는 미소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토 호실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토호실을 만들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가 파이팅 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정 다스리기~ 나르샤 이야기

사회복지사 정해경

감정소통은 거창한 게 아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이말 한마디면 다 될 것 같은 하루도 꼭꼭 참아 보고 되짚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럴 땐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감정 다스리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기분이 좋았다~ 나뻐다~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가도 갑자기 아무 것도 하기 싫다며 고집을 피우고, 또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나르샤에서 생활하는 이용인들의 다양함은 끝이 없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늘 상 이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천둥 번개가 칠 듯 불편해 졌다가도 금세 맑은 날도 오고 웃는 날도 온다. 그리고 정이 많아 아프면 걱정해주고 챙겨 주는 법도 안다.

가끔 서운하거나 가끔 맘이 아픈 것이다.
가끔 욕심이 생겨 때를 쓰는 것이다.
다양한 욕구가 늘고 원하는 것에 대해 표현 하는 것이다.
그러다 화도 내고 후회할 일도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는 미안하다 사과 할 줄도 안다.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고
섭섭한 마음이 그렇고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이 그렇다면
감정을 읽고 나누면서 마음이 편해지기를...^^.

이런 일저런 일



- 일시: 4월 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전체직원회의



- 일시: 4월 11일
- 장소: 라이프볼링장
- 내용: 나눔의집 볼링동호회



- 일시: 4월 12일
- 장소: 문성자연휴향림
- 내용: 가온호실 문성자연휴향림 체험활동



- 일시: 4월 20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정기부모회



- 일시: 4월 22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소방훈련



- 일시: 5월 7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2차 운영위원회

이런일저런일



- 일시: 5월 18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자원봉사자 장애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 일시: 5월 2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직원 인권교육



- 일시: 6월 3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성희롱 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 일시: 6월 11일, 19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미용봉사



- 일시: 6월 26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이용인 인권교육



- 일시: 7월 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상반기 사업 평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자원봉사현황



- **마사지봉사**
김인성, 이수덕, 이현수, 이혜원, 이경선, 홍미경, 이봉순, 최승길, 이명실
- **미용봉사(대한미용사회 충주시지부)**
김상식(올레헤어스케치), 김연희(머리가꾸기), 김정기(곱디고운머리방), 김지성(김지성미용실), 김하은(팜팜미용실), 박미자(엠제이헤어), 박수아(수아헤어러인), 이순옥(이미정미용실), 이정운(정윤헤어), 임정애(림스헤어), 표혜영(엘트레헤어)
- **종교활동 지원**
광휘교회, 수안보장로교회, 송덕교회, 양의문교회
- **치과진료봉사**
이치과의원
- **봉사 단체**
나눔 사랑회, ㈜나루, 들꽃 봉사회, 케어메디칼, 탄금 봉사회, 햇살 봉사회
- **중학생, 고등학생**
곽선영, 권민서, 권영웅, 김기영, 김고은, 김나경, 김나은, 김다솜, 김도현, 김민서, 김민지, 김수민, 김연경, 김유경, 김주은, 김혜수, 김호정, 나예빈, 박서현, 박준배, 박현욱, 반기영, 배수하, 서 현, 손지희, 송윤주, 신태호, 신한이, 원다현, 원다혜, 원유민, 유다은, 이가은, 이경민, 이민지, 이수민, 이정아, 이채연, 장상래, 전지현, 전하린, 전해술, 정승훈, 지승후, 진은민, 차현정, 최유나
- **일반인**
강병규, 강소영, 강예원, 강유진, 감지윤, 강현서, 곽은서, 권예산, 김남훈, 김대현, 김동현, 김수연, 김영성, 김윤지, 김은빈, 김재은, 김재형, 김준석, 김지인, 김현지, 김형진, 나원상, 남규현, 방규진, 배희애, 백지선, 서희영, 손지현, 신연주, 윤성연, 이승규, 이시원, 이예은, 이재강, 전희진, 조병규, 최 훈, 하예지, 한지원, 홍혜영

운영위원회



박 대 응	예가종합건축사무소	류 근 화	노무법인 화인
장 준 영	㈜푸른솔휴먼뱅크	조 영 숙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조 수 정	나눔의집 이웅인 부모 대표	하 정 수	나눔의집 이웅인 대표
정 해 경	나눔의집 종사자 대표	유 명 철	나눔의집 원장
김 원 식	충주시 문화복지국	조 성 옥	문경대학교 재활상담복지학과 교수



방/문/후/원



㈜에이에스엔지니어링	키보드 마우스 세트 3개, 컴퓨터 본체 3대 척촉16과, 델몬트음료세트3box, 사브레8과, 간식바구니9개, 브루누와브라우너쿠키8과, 크라온화이트하임8과, 그랑헬사과8과, 버 터링8과, 미링순쌀과자8봉지, 크라운화이트 하임8과
송덕교회	
ncg동호회	쌀 20kg, 바나나 1box, 파인애플 4개
양의문교회	구운계란 4판, 오쿠르트 6세트
강감수	무 2box
엘에스메디칼	전통침대 1대
경대수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200개입) 2과
염정희	대추 1봉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블루블장아찌230개, 세송이버섯(2kg)8box
윤미숙	두유 4box, 초코파이 4box, 바나나 2box
광동상사(총주)	마인트포인트(350ml) 240개
이순자	가위 2개
권육연	참외(5KG) 2box, 바나나 5개
이재진	꿀액 2박스
김경혜	bbq 치킨텐더(1kg) 30봉지
이현기	프렌치 프레첼(버터맛) 2개, 음료(1.5L) 4개, 유지정키테이즐릿 1개, 오리온초코파이(12 개입) 1과, 리츠 3과
김대섭	칠바비먼 1봉지, 팔도짜장면 1봉지, 신라면 블랙 1봉지, 누구리 1봉지, 신라면 건면 1봉 지, 동지냉면(4개입) 2봉지, 스카치캔디 2봉 지, 꼬깔콘 1봉지, 맛동산 2봉지, 크라운 카라 멜론 3봉지, 오사쯔 1봉지, 짬구 2봉지, 초코 파이 1과, 오예스1봉지, 포테토칩1봉지, 참외 2봉지
임갑식	홍삼골드 드링크 1box, 석류골드 드링크 1box
김미영	맥심커피믹스(200개입) 3과
장경자	들깨 5kg
김은주	전차모기(향리팔용) 10개, 에프킬라 80개
재천관광(정연숙)	의류3세트, 빈팔티3장, 버림막이1장
김정례	프루바이오틱 32개, 미에로화이바 2과
조용만	계란(유정란) 50판
김태영	초코파이 4과, 사브레 8과
증명이밴드	배즙 1box, 빵 1box
나눔사랑회	빵 140개

농업기술센터	소형냉장고 1대, 신발장 1개
충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방울토마토 420kg
농업회사법인 그린그래스(주)	양념돼지갈비(1kg) 75팩, 매콤고추장불고 기(500g) 100팩
충주시 보건소	손소독제 8개, 간장돼지불고기(500g) 100팩
다래떡볶이	떡볶이소스 10kg
충주시청	진동스쿠터 1대, 계란 20판
대장군식당	진라면 600개, 식용유(18L) 8통, 서울유유 360개, 소고기 15kg, 락스(13L) 20통
	닭 50마리, 세송이버섯 12박스, 빵 2봉지, 빵 22개, 생닭 50마리, 콜라겐 오트바(12개 입) 6과, 풍선껌 5과, 해바라기 초코볼 4봉 지, 젤리셔스(공룡박사) 15개, 젤리셔스(곤 약) 9개, 나초 3봉지, 마마켓트 33과, 오일 4봉지, 고깔콘 4봉지, 빼빼로 더블립 36개, 누드초코빼빼로 1box
푸드뱅크	
동글레가족봉사단 8기	오디 5과
하정인	매실 80kg
무지개떡 방앗간	호박떡 1box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충북협회)	비누 336개, 칫솔 48개, 치약 336개, 핸드 워시 48개, 캔디서너 240개, 삼푸 480개, 바디워시 240
민은자	삼추 2box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차량용배터리 1개, 타이어 4개
박만원	감자 35kg
적십자 햇살봉사회	딸기 10box, 오렌지 3box, 떡 2말
박래동	사과 1박스
홍루이젠	샌드위치 206개
배효진	아이스크림 150개
흥진환경	단팥빵 267개, 카스테라빵 204개
서동석	맥심커피믹스(50개입) 3과
손용철	델몬트 주스 드링크 2box, 설레임(24개입) 2box, 조스아이스(24개입) 1box, 빙그레파 르페(12개입) 1box, 빼빼로(24개입) 1box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4월 21일 충주사랑회(소영웅 회장)는 나눔의집 이용인 중
송덕학교에 재학 중인 이용인 3명과 재정이 열악한 이용인 2명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하고, 나눔의집 발전기금으로 5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라는 슬로건을 갖고
충주 나눔의집에 반찬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모범을 보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정기후원 : 매월 1구좌(5,000원)이상 후원신청(전화 또는 신청서 작성) → 지로나 자동이체로 입금 → 소식지 발송 입금확인

- 지로입금방법 : 본 원에서 발송되는 지로로 입금
- 자동이체방법 : (1) 거래하시는 은행에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본 원의 계좌로 자동이체신청
(2) 나눔의집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이 가능하며, 나눔의집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셔도 됩니다.



물품후원 : 생활필수품, 교재, 교구, 의류, 간식 등



자원봉사활동

- 생활보호 서비스 보조 (목욕, 식사, 말벗되어주기, 산책, 종교활동 등)
- 가족 봉사, 미용봉사, 노력봉사등



해피빈 후원 해피빈 은 nhn(NAVER)이 운영하는 공익포털사이트입니다.

네이버 회원이면 누구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콩을 나눔의집 모금함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happylog.naver.com/cjnanum.do>



후원계좌번호

- 지로 : 7607189
- 국민은행 : 402-01-0388-399
- 하나은행 : 691-810006-26805
- 신한은행 : 100-011-220720
- 농협 : 417015-51-051393
- 우체국 : 301507-01-002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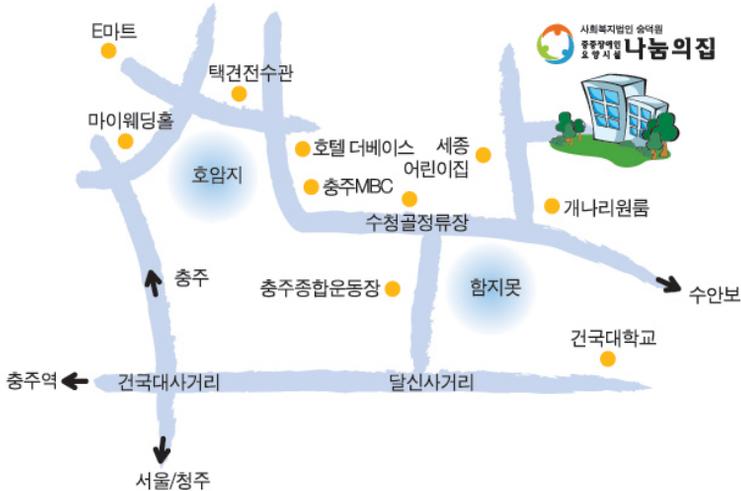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은 중증 장애인의 보육 및 치료,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됩니다.

2019년 2분기(4월~6월)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세 입		세 출			
1분기 이월금	51,634,754	제수당	874,770	자산취득비	495,280
비지정	26,212,540	회의비	48,100	시설장비유지비	7,548,000
지정후원금	2,660,000	기타후생경비	1,669,030	생계비	800,000
법인전입금(지정후원)	1,000,000	일용잡금	540,000	의료비	99,000
상반기 예금이자	19,712	여비	632,200	연료비	359,000
		수용비 및 수수료	2,669,507	수용기관경비	803,500
		공공요금	209,610	자활사업비	1,160,000
		제세공과금	466,560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12,879,590
		차량비	144,850	교육재활 사업비	340,000
		기타운영비	100,000	지정후원물품	6,572,189
총수입 / 81,527,006원		2분기 지출금 / 38,401,186원			
2분기 이월금 / 43,125,820원					



찾아오시는 길

자 가 용: 충주IC → 충주방향 → 건국대 사거리(우회전) → 0.8km 직진 → 달신 사거리(좌회전) → 1.3km 직진 (우회전) → 150m 직진(개나리원룸 좌회전, 표지판 참조) → 300m 직진 후 우회전 언덕 끝지락

대중교통: 충주 터미널 → 수안보 방향 버스 승차 → 수청골입구에서 하차 → 150m 직진 (개나리 원룸 좌회전, 표지판 참조) → 300m 직진 후 우회전 언덕 끝지락

장애인보호작업장 **철교**



www.ksdw.or.kr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상담 : 충북 충주시 돌량면 대전조문길 301
 T. 043) 851-1890 F. 043) 855-1892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종이컵 및 삼정케이스가 필요하신분은
 ZAN으로 연락주세요
 T 043) 856-4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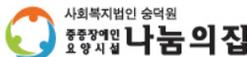


충주시 공식 1호 푸드 트럭



호암지 산책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http://www.ksdw.or.kr/cjoulm/
 운영: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충주어울림센터
 메뉴: 커피 & 차 및 간식류
 장소: 호암지 내 생태전시장 앞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금)
 문의: 043) 856-0509



(우)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 Tel : 043) 843-9912 || Fax : 043) 843-9911
<http://www.cjnanum.or.kr/>